

체온 높고 깃털 때문에 더위 약해, 환기로 닭장 온도 낮춰야

- 농촌진흥청, 9월까지 폭염 피해 예방 기간 운영·지원 -

농촌진흥청(청장 이양호)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른 더위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닭 관리방안을 제시했다. 닭은 다른 포유동물과 달리 체온(41℃)이 높고 깃털로 덮인 데다 피부에 땀샘이 없어 더위에 무척 약하다. 닭장 내 적정 온도는 16℃~24℃로, 주변 온도가 27℃ 이상까지 오르면 열스트레스로 피해가 커진다. 특히, 고온에 습도가 90% 이상 오르면 열량지수(쾌적 열량지수 900~1,300)가 1,800~2,300으로 높아져 육계의 경우, 출하 직전에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 고온기 열량지수는 환기로 관리한다. 풍속을 높여서 체감온도를 낮추는 터널식 환기와 쿨링 패드, 살수장치(스프링클러), 그늘막 시설 등을 이용한다. 또, 육계는 역전점 등¹⁾, 냉각수 급여 등으로 열스트레스를 줄여준다.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박동구 과장은 “6월부터 9월까지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‘폭염 피해 예방 기간’으로 정하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의 사양 관리 요령 등 현장 기술 지원과 홍보를 강화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**양계**



터널식 대형팬



순환팬과 안개분무



그늘막 설치



그늘막과 쿨링팬

〈축종별 고온 피해 시작 온도〉

구 분	닭
알맞은 온도	16~24℃
고온 피해 시작 온도	30℃

- ▶ 알맞은 온도보다 높으면 → 사료 섭취량이 줄어 발육이 떨어짐
- ▶ 고온 피해 시작 온도보다 높으면 → 발육·번식 장애, 질병 발생, 폐사 등 발생
- ▶ 30℃~35℃의 고온이 12일 간 지속되면 산란계 : 산란수 16% 감소

1) 낮에는 (쉬게) 불을 꺼주고, 밤에 시원할 때 불을 켜 먹이를 먹도록 함.